

## 입원아동어머니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

김현주\* · 김미현\* · 김여경\* · 유미복\* · 오진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에게 있어서 질병과 그에 따른 입원은 신체적인 긴장, 통증, 운동의 제한 등을 갖게 할 뿐 아니라(문영임, 1991), 정서적인 불안, 공포를 갖게 함으로써(송지호, 1991) 성장 과정에서 하나의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아동이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게 되면서 가족생활의 일시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Freiberg(1972) 입원이라는 극적 변화는 특별한 치료가 주어지지 않아도 입원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하다고 보고하고, 아동 입원이라는 상황은 어떤 경우이건 어머니에게 심한 불안을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아동의 질병으로부터 빠른 회복 뿐 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원아동 부모에 대한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머니는 입원아동을 주로 돌보는 자로서 어머니에게 입원아동의 질병, 치료와 간호에 대한 정

보제공과 지지가 부적절하거나, 어머니로서 입원아동을 위한 역할 규명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Seldon, 1997). 그러므로 건강전문가들은 이러한 입원아동어머니의 간호요구를 인식하여 입원아동어머니를 위한 간호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Milles, Funk, & Casper, 1991).

아동의 입원으로 가족은 모든 기능을 입원한 아동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어머니 역할 변화를 포함하여 가족기능의 변화가 있고 가족위기로 몰고 가기도 하므로 간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어머니의 요구를 제대로 사정하고 중재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인식이 성공적인 위기중재의 요건 중 하나이므로 입원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의 평가는 입원아동어머니가 아동의 입원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것은 간호요구의 탐색과 함께 통합적인 간호중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질병에 대한 지식부족과 치료과정 및 예후의 예측불가능으로 인해 입원아동어머니는 아동

\* 좋은강안병원 소아과간호사

\*\*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오진아 : ohjina@inje.ac.kr

의 질병과 입원과 관련하여 불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며 그에 따라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는 아동에게도 정서적으로 불안, 공포 등을 야기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진아, 199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질병이나 입원이라는 사건에 대해 중요성을 정의할 수 없거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음으로 인해 사건을 분명하게 평가하고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의 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그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의 특징으로는 막연함, 불분명, 애매모호, 예측불가능, 불일치, 가망성, 함축성, 정보의 결핍 등이 있다(Norton, 1975). 그러나 그런 분명화하는 과정은 주어진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그래서 중환아실에 입원한 아동을 돌보는 부모는 과잉반응을 할 수 있고 계속 불확실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부모의 불확실성 정도가 클수록 자녀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Miles, 1979). 더욱이 가족 중 아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머니는 입원아동의 증상이나 처치 및 치료를 지켜봄으로써 그녀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입원아동이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아동의 질병에 대한 정보의 결핍과 미래에 대한 예측불가능으로 인하여 무기력과 불안을 느끼게 되며, 어머니의 불안과 아동에 대한 동정심은 아동을 방임하거나 과잉보호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하영수, 1978). 이러한 아동을 직접 돌보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와 태도는 아동에게 전달되어 질병을 가진 아동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Mishel(1983)은 자녀의 입원과 관련하여 부모의 불확실성의 예측에 대한 연구에서 예측가능성은 자녀의 질병과 입원에 대해 부모가 반응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Cohen과 Martinson(1985)은 가정에

서 암환아를 간호하고 있는 부모의 연구에서 부모가 딸기 암환아를 간호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믿는 요소로서 부모의 불확실성이 확인된 바를 볼 때 입원아동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정도를 사정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Boylan(1974)은 본래 인간의 요구는 복잡하고 미묘하여 개인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아과 간호사는 입원한 아동을 간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간호해야 하므로 모든 영역에서 가족이 만성적인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동의 입원생활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어머니의 간호요구를 파악하여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간호계획을 수립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간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부모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써 심리적 불안, 역할 갈등, 입원아동을 돌보는 부담감, 아동의 질병으로 인한 잠재적인 사회, 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김희순, 1989; 박종숙 1988; 서지영, 2002). 간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가족의 요구를 제대로 사정하고 중재할 책임이 있다(오진아, 1997). Palmer(1993)는 입원한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의 정서가 아동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므로 병원 생활에 대한 부모의 간호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입원아동어머니의 간호요구를 조사하였으나 입원아동의 질병과 입원에 대한 인식정도를 사정하거나 불확실성의 인지정도를 사정하는 연구는 드물고 간호요구도와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는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입원아동어머니의 질병과 입원에 대한 불확실성의 인지를 사정하고 그에 따른 간호요구를 확인하고 아울러 입원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정도와 간호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소아과 간호

사들의 임상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자녀 입원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을 위기로 몰고 가지 않고 잘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간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간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 용어의 정의

### 1) 불확실성의 인지(Perception of Uncertainty)

의사결정자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없거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인지상태(McIntosh, 1976)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3)이 개발한 PPUS (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를 사용하여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지각정도를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 2) 간호요구(Need of Nursing)

간호는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안위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도움이다(Orlando, 1961). 간호요구는 입원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을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위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영미 등(1999)이 작성한 자가보고형의 질문지를 수정하여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50일간 부산시에 소재한 1개 종합병원에 급성감염으로 입원한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먼저 병원장의 동의를 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를 수락한 자를 선정하여 직접 질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 200명의 회수된 질문지 중 내용기재의 미흡으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27부를 제외한 173부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 2. 연구 도구

### 1) 불확실성의 인지 측정도구

불확실성의 인지 측정도구는 Mishel(1983)이 개발한 PPUS(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을 오진아(1997)에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아동의 입원과 관련하여 부모의 불확실성의 인지정도가 아동의 질병경과와 입원상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질병과 입원에 관련하여 부모의 불확실성의 인지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며, 아동을 가진 부모의 경험에 대한 인지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PPUS는 31문항의 4점 Likert 도구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의 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78, 오진아(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5,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이었다.

### 2) 간호요구도 측정도구

입원아동 어머니의 간호요구는 김옥(2001)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총 37문항의 설문지로서 간호사정 영역 11문항, 직접간호 영역 10문항, 상담교육 영역 7문항, 그리고 시설환경 영역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 '매우 중요하다'에 4점을 주는 4점 Likert scale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옥(2001)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69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이었다.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통계는 서술통계, 대상자의 불확실성 인지정도와 간호요구도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은 t-test, ANOVA, 대상자의 불확실성 인지정도와 간호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인 입원아동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아동의 평균나이는 39.6개월(±32.74)이었으며, 유아기가 75명(43.4%)으로 가장 많았고, 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았으며(98명, 56.6%), 출생순위는 첫째 아이가 104명(60.1%)로 가장 많았다. 아동의 평균입원횟수는 2.3회(±1.63)이었고, 68명(39.3%)이 입원경험이 없었고, 현재 8인실을 사용하는 아동이 68명(39.3%)로 가장 많았다. 가족의 형태는 핵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3)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환아 나이	영아기(1~12개월)	25 (14.5)	39.6(±32.74)
	유아기(12~36개월)	75 (43.4)	
	학령전기(37~72개월)	48 (27.7)	
	학령기(73개월 이상)	25 (14.5)	
환아 성별	남자	98 (56.6)	
	여자	75 (43.4)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아이	104 (60.1)	
	둘째아이	65 (37.6)	
	셋째아이	4 ( 2.3)	
입원 경험(횟수)	없음	68 (39.3)	2.3(±1.63)
	있음	105 (60.7)	
입원 병실	1인실	32 (18.5)	
	2-3인실	64 (37.0)	
	5인실	9 ( 5.2)	
	8인실	68 (39.3)	
가족형태	핵가족	153 (88.4)	
	대가족	20 (11.6)	
어머니 나이	20대(20-29세)	55 (31.8)	31.5(±3.9 )
	30대(30-39세)	115 (66.5)	
	40대(40-49세)	3 ( 1.7)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57 (32.9)	
	대졸이상	116 (67.1)	
어머니 직업	없음	97 (56.1)	
	있음	76 (43.8)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	2 ( 1.2)	
	101~200만원	39 (22.5)	
	201~300만원	68 (39.3)	
	400만원 이상	64 (37.0)	

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153명, 88.4%). 어머니는 평균 31.5세(±3.92)였으며 30대가 115명(66.5%)이었다. 어머니 학력은 대졸이상이 116명(67.1%)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고학력 수준을 나타내었고, 97명(56.1%)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월평균수입은 200만원대가 가장 많았다(68명, 39.3%).

## 2.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는 총점 66.73(±10.43)점이었다. 입원아동 어머니의 간호요구는 총점 124.42(±14.09)점이었고, 영역별 간호요구를 살펴보면 간호사정은 37.37(±4.44)점, 직접간호는 34.59(±4.56)점, 상담교육은 24.42(±2.97)점, 시설환경은 27.84(±4.79)점이었으며, 영역별 간호요구를 평균평점으로 보면 상담교육의 요구가 가장 높고, 시설환경에 대한 간호요구가 가장 낮았다<표 2>.

<표 2> 입원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

변수	영역(문항수)	총점(±표준편차)	평균평점	최대값	-	최소값
불확실성의 인지	(31)	66.73(±10.43)	2.15	95	-	43
	전체(37)	124.42(±14.09)	3.36	148	-	58
간호요구	간호사정(11)	37.57(± 4.44)	3.41	44	-	16
	직접간호(10)	34.59(± 4.56)	3.46	40	-	15
	상담교육(7)	24.43(± 2.97)	3.49	28	-	10
	시설환경(9)	27.84(± 4.79)	3.09	36	-	14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의 차이

(N=173)

특성	구분	불확실성의 인지			간호요구		
		평균±표준편차	F or t	p	평균±표준편차	F or t	p
환아나이	영아기	67.04±12.16	1.04	.37	127.76±12.54	1.42	.23
	유아기	66.55±11.25			125.64±13.96		
	학령전기	68.35± 8.27			121.54±16.57		
	학령기	63.73±10.48			122.96± 9.60		
성별	남자	66.34±10.82	-.56	.57	124.30±13.85	-.13	.89
	여자	67.24± 9.95			124.59±14.50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아이	66.08± 1.03	1.37	.26	125.75±11.95	2.03	.13
	둘째아이	67.31±10.23			122.97±16.28		
	셋째아이	74.25± 8.57			113.50±23.72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

입원아동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의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어떠한 변수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3>.

## 4.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의 상관관계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 사이에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 $r=.302, p=.000$ )가 있었다<표 4>.

<표 4>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의 상관관계 (N=173)

변수	불확실성의 인지
간호요구	.30 (p=.00)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의 차이(계속) (N=173)

특성	구분	불확실성의 인지			간호요구		
		평균±표준편차	F or t	p	평균±표준편차	F or t	p
입원경험	없음	65.62±11.11	-.97	.33	125.50±16.39	.59	.55
	있음	67.58±10.62			123.75±15.29		
입원병실	1인실	65.53± 8.44	.50	.73	122.59±19.63	.99	.41
	2인실	64.81±10.66			126.27±14.12		
	3인실	67.08±11.45			124.32±13.53		
	5인실	67.33±16.82			132.22±13.63		
	8인실	67.75± 9.72			123.60±11.06		
가족형태	핵가족	66.66±10.62	-.23	.81	124.66±13.95	.61	.54
	대가족	67.25± 9.10			122.60±15.38		
어머니 나이	20대	68.02±11.05	1.22	.29	121.16±14.55	2.54	.08
	30대	65.96± 9.88			125.77±13.70		
	40대	72.67±19.34			132.67±13.05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66.64±10.93	-.12	.89	125.01±13.97	.61	.53
	직장	66.84± 9.83			123.67±14.31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67.79±10.84	.93	.35	126.19±13.16	1.15	.24
	대졸이상	66.21±10.23			123.55±14.50		
월평균 수입	100이하	67.00± 7.07	1.53	.20	120.00±19.79	1.34	.26
	101-200	69.85±10.45			127.79±12.25		
	201-300	65.65±10.82			124.69±11.42		
	400이상	65.97± 9.91			122.22±17.15		

#### IV. 논 의

우리나라는 가족구성원이 많고 다양했던 예전의 확대가족의 형태와는 달리 부부와 직계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가 가장 많아 자녀들은 부모와 늘 함께 있으면서 활발하게 상호교섭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가정의 운영은 어른 중심이라기보다 자녀들을 중심으로 능률적으로 꾸려가는 특성을 보여준다(오진아, 1997). 부모는 자녀들의 평범한 행동에도 칭찬을 즐겨하고 많은 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할 뿐 아니라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나머지 자제력을 잃을 때도 있는데, 이러한 부모자녀의 관계는 부모들이 다소 극성스러운 편이고 자녀들에게 닥칠 위험에 신경을 쓰며 자녀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헌신적으로 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부모가 자녀를 절제 있는 애정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김재은, 1988). 이와 같

이 가족의 중심인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착행동은 자녀에게 신체적인 손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부모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더군다나 자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을 하게 되면 아동 자신에게도 육체적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가정이라는 환경을 떠나 낯설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분리불안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각종 처치에 따른 불안, 공포, 병상생활 적응 실패 등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오진아, 1997). 더군다나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쉽게 전이되고 아이의 회복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한다(McCubbin & Patterso, 1981).

본 연구에서 입원아동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는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질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박은숙(1996)의 연구(평균 2.44

점)와 경련성 질환아를 대상으로 한 인주영(1989)의 연구(평균 3.23점), 그리고 암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오원옥과 박은숙(1998)의 연구(평균 2.41점)에서 나타난 불확실성의 정도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이다. 불확실성은 질병과 관련된 사건의 의미를 결정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장애 아동이나 소아암과 같은 만성질환아의 부모들은 아동의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입원아동어머니보다 불확실성의 인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진아(1997)의 연구(평균 2.37점), 김옥(2001)의 연구와는 비슷한 결과(평균 2.35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 입원아동어머니들은 대체로 자녀의 질병과 입원 등의 상황에 대해 장애아동이나 만성질환아의 어머니보다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입원아동어머니는 치료과정이 뚜렷한 외과적 수술처리를 하는 아동과 달리 내과적 문제를 가진 감염성 질환 아동이라는 특성에서 유사한 정도의 불확실성을 인지한다고 생각된다. 불확실성은 때때로 복합적인 사건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아동이 받는 치료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내외과적 진단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나 정확한 진단명을 모르는 경우, 그리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결과에 따라 부모에게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정도는 다양하다(오진아, 1997). 수술을 받는 외과 입원아동은 일반적으로 진단명이 확실하거나 앞으로의 치료과정이나 절차가 예측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내과 입원아동은 보통 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치료가 좀 더 특별하고 질병의 원인이 복잡하면 부모는 지칠 수 있다. 한편 진단명을 찾고 있는 경우는 아동에게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되며 부모는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의 상태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체계적인 정보를 찾기 위한 과정과 그 기간 동안 부모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입원과 같이 개인이나 가족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만일 사건이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면 일어난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올바른 인식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절히 수행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해결이 성공적일 가능성이 많은 반면 사건을 왜곡하거나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건과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므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Lazarus & Folkman, 1984). 그러므로 임상에서는 아동의 입원과 동시에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 정도를 즉시 파악하여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로 입원아동어머니는 4점 만점에 평균 3.36점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김옥(2001)의 연구에서 3.37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교육에 관한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신증후군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백승남과 성미혜(1997)의 연구결과 '알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김옥(2001)의 연구에서는 상담교육영역보다는 직접간호영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연구가 각각 일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각 병동의 특성으로 여겨진다. 간호요구의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준 항목은 '보호자의 질문에 성의있는 대답을 해주는 것(3.74점)'으로 상담교육의 간호요구가 가

장 높은 것일 뿐 아니라 상담교육에 있어 간호사나 의사의 정확한 정보전달 보다는 성의있는 태도와 정서적 지지를 더욱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평균 3.70점 이상의 높은 간호요구를 보인 항목은 '아이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 설명을 해주는 것(3.73점)', '간호사가 능숙하게 주사를 잘 놓는 것(3.73점)'이었다. 이 결과는 백승남과 성미혜(1997), 서영미 등(1999), 김옥(2001), 그리고 Smitherman(1979)의 연구에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3.72점)', '아이가 검사를 하기 전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3.71점)', '체온, 맥박, 호흡수를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것(3.70점)'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입원 아동 어머니는 아동의 질병과정과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할 뿐 아니라 아동의 간호 및 치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입원아동 간호를 위해서는 아동의 상태와 치료과정 등을 성의있고 친절하게 알려줄 뿐 아니라 직접간호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신속하며 능숙한 처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입원아동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입원아동어머니는 질병에 대한 설명과 질병과정, 진단, 치료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제공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확실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 부모의 불확실성의 인지가 클수록 부모는 아동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김옥, 2001). 또한 이해와 판단이 따르지 않을 때 부모는 아동의 질병에 대해 불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며, 이러한 불확실한 인지로 인해 발생한 불안감, 죄의식 등의 정서적 반응은 아동에게 그대로 전이될 수 있으며 결국 아동의 치료나 예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미현, 1984). Hymovich(1976)의 '입원아동

부모의 요구와 과업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질병과 입원이라는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입원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질병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고, 질병의 과정, 진단, 아이가 받게 되는 치료와 절차의 정보를 받고 싶어하며, 받은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이 연구결과로 부모의 이해와 인지에 대한 사정의 필요성이 인지되었고 간호요구 역시 정보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전략의 사정과 다양성이 고찰되었다고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낮은 환경과의 접촉으로 자기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며 여러 가지 치료적 절차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스트레스 사건이 된다. 본 연구는 소아과에 입원한 환자 부모를 대상으로 불확실성 인지와 간호요구를 조사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 까지 50일간 부산시에 소재한 1개 종합병원에 급성 감염으로 입원한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주었으며, 17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도구는 불확실성 측정을 위해 Mishel (1983)이 개발한 PPUS(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을 오진아(1997)에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입원환자 어머니의 간호요구도 도구는 김옥(2001) 간호요구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통계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는 총점 66.73(±10.43)점이었다. 입원아동 어머니의 간호요구는 총점 124.42(±14.09)점이었고, 영역별 간호요구를 살펴보면 간호사정은 37.37(±4.44)점, 직접간호는 34.59(±4.56)점, 상담교육은 24.42(±2.97)점, 시설환경은 27.84(±4.79)점이었으며, 영역별 간호요구를 평균평점으로 보면 상담교육의 요구가 가장 높고, 시설환경에 대한 간호요구가 가장 낮았다.
2. 입원아동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의 차이를 검정해본 결과 어떠한 변수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인지와 간호요구 사이에는 매우 유의한 정적상관관계( $r=.302$ ,  $p=.000$ )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입원한 아동 어머니의 상담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임상에서 입원아동의 질병에 대한 어머니의 간호요구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김미자 (2005). 입원환아 부모가 인지한 간호 교육요구와 간호사의 교육수행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은 (1988).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희경 (2004). 입원환아 간호요구 중요도에 대한 부모와 간호사의 인식 및 간호 행위 수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옥 (2001). 아동의 입원과 관련된 어머니의 불확실성 지각정도와 간호 요구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진 (1992). 만성질환아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가족기능간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김희순 (1989). 정서, 정보적 지지 모음이 만성 질환 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문영임, 구현영 (1996). 정신 지체아 부모의 스트레스, 대응 및 적응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26(1), 165-176.

박종숙 (1989). 정신박약아가 있는 가족의 가족 기능과 가족 지지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영미 (1999). 입원환아 부모의 간호요구. 아동간호학회지, 5(1), 59-69.

서지영 (2002). 입원환아 가족의 간호 요구도와 만족도. 아동간호학회지, 8(2), 195-196.

성미혜 (1997).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교육 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지한 교육 활동의 중요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2), 167-177.

송지호 (1991). 입원아동의 주사공포 감소를 위한 필름모델기법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측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원옥, 박은숙 (1998). 암환아 부모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자기효능감 및 대처정도. 아동간호학회지, 4(2), 274-285.

오진아 (1997). 아동입원과 관련된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지각정도와 대처노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경희, 김애자 (2001) 소아과에 단기 입원한 환아 부모의 간호 요구도 조사. 한국간호교육학회

- 지, 323-332.
- 이미현 (1984). 만성질환아 부모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주영 (1989). 경련성 질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과 가족정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 이경혜 (1998). 가족중심 간호학. 신광 출판사; 서울
- 하영수, 이자형 (1990). 아동 간호학. 수문사; 서울. 65-81.
- Boylan, A. (1974). An approach to nursing meeting the patient need. Nursing Times, 21, 1871.
- Cohen, M. H. (1993). Diagnostic closure and the spread of uncertainty,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6, 135-146.
- Freiberg, K. H. (1972). How to react to when their child is hospitalized.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2, 1270-1272.
- Hymovich, D. P. (1976). Parents of sick children: their need and tasks. Pediatric Nursing, 2(5), 9-13.
- Lazarus, & Folkman (1984). A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 pub.
- Martinson Ida M. (1994). Changes overtime: A study of family bereavement following childhood cancer. Journal of Pallative care, 10(1), 19.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1). Systematic assesment of family stress, resource and coping: Tools or research, education, and clinical interven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McIntosh, R. (1976). Process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seeking and control associated with cancer. Social Science and Medicine, 8, 167-187.
- Miles (1979). Impact of the intensive care unit on parents.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December, 3, 79-89.
- Miles, M. S., Funk, S. G., & Casper, M. A. (1991).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nvironment: Source of stress for parents. AACN Clinical Issues in Critical care Nursing, 21(1), 346-354.
- Mishel (1983). Parent' perception of uncertainty their hospitalized child. Nursing Research, 32(6), 327-328.
- Norton, R. W. (1975). Measurement of ambiguity tolera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ment, 39, 763-765.
- Orando, I. J (1961). The dynamic nurses-patient relationship. New York Patoman's Sons Inc.
- Palmer, S. J (1993). Care of sick children by parents: A meaningful ro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 185-191.
- Sheldon, L (1997). Hospitalizing children: A review of the effect. Nursing Standard, 12(1), 185-210.
- Smitherman Collen, H. (1979). Pati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have needs. Too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9(8), 1424-1432.

---

## ABSTRACT

Key Words : Perception of uncertainty, Nursing need, Hospitalization

# A Study on Mother's Perception of Uncertainty and Nursing Need Concerning Child's Hospitalization

Kim, Hyun-Ju\* · Kim, Mi-Hyun\* · Kim, Yeo-Kyung\* · Yu, Mi-Bok\* · Oh, Jin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in ensuring a high quality of nursing needed by hospitalized child's mother through research of the mother's perception of uncertainty and nursing need concerning child's hospitalization. **Method:** 173 hospitalized child's mothers at G hospital in Busan are questioned. The tools used in this study are PPUS(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 and the nursing need of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PC program. **Results:** 1) The perception of total uncertainty for the

hospitalized child's mother showed average 2.37 and the nursing need showed very high level, 3.37. 2) The perception of uncertainty in accordance with general character of the hospitalized child's mother shows non significant difference 3) Significant correlation indicated between the perception of uncertainty of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 and nursing need. **Conclusion:** It is to be desired to prepare a program which can raise the level of perception developing a method that is able to practically assess and manage the level of perception of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

---

\* Nurse, Department of Pediatrics, Good Gangan Hospital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